

# '16년 제2차 협치성북 민간집담회 회의록

---

## □ 회의 개요

- 일시 : 2016. 10. 05.(수), 19:15 ~ 20:51 (1시간36분)
- 장소 : 성북구청 다목적홀(지하1층)
- 참석 : 진행 김기민 · 마을사회적경제센터 팀장 김우철 · 찾동추진지원단 부단장 정윤주 · 마을사회적경제센터 양현준 · 마을사회적경제센터 전미희 · 마을민주과 팀장 은현기 · 마을민주주의과 김종표 · 혁신교육추진단 송민기 · 능말이야기 이상림 · 함께살이성북 사회적협동조합 박학룡 · 월곡1동주민자치위원 김태석 · 장위동 주민 황선영 · 월곡2동 주민 박우영 · 보문동마을계획단 황효심 · 보문동마을계획단 유제훈 · 장수마을 주민협의회 대표 배정학 · 성북마을살이연구회 대표 홍수만

## □ 토론 내용

( 19:15 개의 )

○ 진행 김기민 : 안녕하세요. 먼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협치성북 정책현안공유를 위한 민간집담회 두 번째 모임이고요. 앞서 보신 영상은 지난 9월에 성북구에서 마을만들기사업을 진행하는 단위들이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는데 ‘모여라, 성북마을’이라고 거기 참여하셨던 단체들과 함께 봤던 마을 연극입니다.

마을만들기 공모사업에 참여하는 주민들이 겪을 수밖에 없는 다양한 애환과 이야기들을 에피소드로 만든 작품이었는데 현장에서 반응도 좋았고, 또 이런 마을활동을 하는 주민 단위들이 공감할 만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서 오늘 시작하는 이야기로 잠시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다 보면 좋을 텐데 시간이 조금 걸려서 중반부까지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사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성북구에서 협치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현황들을 민간영역 내에서 같이 공유하고 알리는 일환으로써 지난 8월 30일 집담회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오게 되었고요. 9월 한 달 동안은 지역 혁신의 다양한 분야별로 찾아뵙고 이야기 나누는 간담회 자리가 진행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됐던 경과를 짧게 말씀드리고 오늘 집담회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석하신 분들의 인원이 많지 않으니까 가급적이면 앞쪽 테이블로 앉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야 속기활동을 열심히 해 주고 계신 분께 좀 더 좋은 환경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디서 오신 누구인지 짧게 자기소개 먼저 하고, 경과보고도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 마을·사회적경제센터 팀장 김우철 : 저는 성북구 마을·사회적경제센터 마을공동체팀의 김우철이라고 합니다.

(일동 박수)

- **찾동추진지원단 부단장 정윤주** : 안녕하세요. 찾동추진지원단의 정윤주입니다.

(일동 박수)

- **마을·사회적경제센터 양현준** : 이름은 양현준이고, 성북구 마을·사회적경제센터에서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동 박수)

- **혁신교육추진단 송민기** : 혁신교육추진단에서 왔습니다.

송민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동 박수)

- **능말이야기 이상림** : 저 돈암2동에 사는 주민이고요. 능말이야기의 이상림입니다.

(일동 박수)

- **함께살이성북 사회적협동조합 박학룡** : 함께살이성북 사회적협동조합 박학룡입니다.

(일동 박수)

- **월곡1동주민자치위원 김태석** : 저는 월곡1동주민자치위원 김태석이라고 합니다.

(일동 박수)

- **장위동 주민 황선영** : 장위동 주민 황선영입니다.

(일동 박수)

○ 월곡2동 주민 박우영 : 월곡2동 주민 박우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동 박수)

○ 보문동마을계획단 황효심 : 저는 보문동마을계획단 교육문화분과위원장을 맡고 있는 황효심입니다.

(일동 박수)

○ 장수마을 주민협의회 대표 배정학 : 장수마을 주민협의회 배정학입니다.

(일동 박수)

○ 성북마을살이연구회 대표 홍수만 : 돈암1동에 살고 있는 홍수만입니다.

(일동 박수)

○ 보문동마을계획단 유제훈 : 안녕하십니까? 보문동마을계획단의 유제훈이라고 합니다.

(일동 박수)

○ 마을민주주과 기획팀장 은현기 : 종암동 주민 은현기입니다.

(일동 박수)

○ 마을민주주의과 김종표 : 마을민주주의과 김종표입니다.

(일동 박수)

○ 마을·사회적경제센터 전미희 : 안녕하세요. 마을·사회적경제센터의 전미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일동 박수)

○ **진행 김기민** : 오늘 집담회는 예정된 7시에 시작해서 정확하게 9시 전에 끝낼 수 있도록 원활하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오늘 집담회는 지난 1차 집담회와 같이 성북구 내 다양한 주민활동단위,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회, 마을계획단,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마을공동체활동이나 마을만들기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주민모임이나 단체, 사회적경제조직, 그 다음에 주거환경관리사업이나 도시재생 분야의 어떤 주민조직이나 공동체, 혁신교육 분야, 기타 지역활동이나 혁신 분야에서 활동하시는 단위들을 중심으로 안내를 드리고 초대를 했습니다.

1차 집담회와 오늘 집담회에서 나눌 내용들은 서울시와 성북구가 추진하고 있는 어떤 협치의 개념과 그 정책, 관련된 사업이나 활동들을 공유하고 지역 내에서 다양한 민간단위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관과 협력해서 다양한 활동들을 해 나갈 수 있는지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1차 집담회를 통해 구성된 공동주최단에서 함께 만든 자리인데요. 누리마실친구들협동조합, 성북동의 주민공동체 성북동천, 성북마을살이연구회, 찾아가는 동마을복지 추진지원단, 혁신교육추진단에서 참여를 확정해 주셨고, 공유성북원탁회의와 녹색연합, 마을계획단연합, 정릉아리랑시장상인회, 함께살이성북 사회적협동조합, 함께하는 성북마당에서는 현재 다 참여한 상태입니다. 모임은 공동주최단에서 중심이 되어 꾸려진 기획단과 성북구 마을·사회적경제센터가 주관하게 되었고, 성북구청과 협치서울추진단이 후원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오늘 집담회에 대한 개략적인 소개는 이것으로 될 것 같고요. 그동안 진행됐던 경과들을 안내드리겠습니다.

8월 16일에 최초로 협치성북 민관설명회가 열렸습니다. 협치정책에 관련된 안내를 하는 자리였고 민관이 합동으로 만든 자리였는데요. 그 자리에서 이런 내용들이 더 많은 주민들에게 알려질 필요가 있겠다는 논의가 있었고, 8월 30일에 이런 논의를 위한 전체적인 다양한 단위들이 모이는 민간집담회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집담회가 끝난 이후에 모임을 열고 관련정책들을 공유하는 자리들을 주관해 나갈 공동주최단과 실무기획단을 구성했고요. 그 실무기획단이 중심이 돼서 9월 6일에는 마을민주주의과와 합동으로 이루어진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임원단 면담이 있었습니다. 같은 날에 마을계획단연합모임이 준비모임 격으로 열렸었고, 9월 12일에는 기획단에 참여한 다양한 민간단위들과 성북구청의 마을민주주의과나 마을재생기획단이 합동으로 모여서 협력회의를 가졌습니다. 19일에는 주민자치위원협의회 임원단 면담이 있었고, 같은 날 마을민주주의과 차원에서 통·반장협의회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1일에는 마을계획단연합과 마을민주주의과 면담이 있었고, 27일에 마을만들기 분야의 협치성북 간담회가 열렸고, 28일에는 도시재생 분야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사이에 협치서울지역활동가모임이라고 해서 세 차례 정도 중간에 들어간 내용이 있는데요. 지금 서울 광역차원에서든 민관단위에서든 협치서울지역협의회가 준비모임 형태로 진행됐었고, 지난 30일에 세 번째 간담회를 통해서 협치서울지역협의회 구성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광역단위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민관단위들이 협의회를 구성했고 아마 앞으로 이 단위가 서울협치협의회에 대응하는 성격의 민관단위로서 기능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각 자치구별로 2명 정도의 연락담당자, 혹은 소통책임자를 파견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 성북지역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민관기획단에서 2명 정도를 선임해서 협치서울지역협의회에 보내고 있는 상태인데 그 2명은 지금 발언하고 있는 저와 맞은편에 계시는 성북마을살이연구회의 홍수만 대표가 소통책임자 역할을 맡아서 협치서울지역협의회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경과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요. 혹시 보고드렸던 내용 가운데 좀 더 상세히 듣고 싶은 내용이나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보문동마을계획단 유제훈** : 여기 일자별로 많이 회의를 하고 계셨는데 이

회의를 했을 때 언제, 언제 했는지 통보를 해 주시고 한 겁니까? 저는 오늘 처음 얘기 듣고 온 것이거든요?

- **진행 김기민** : 중간 중간 사이에 있는 분야별 간담회는 예를 들어서 마을계획단연합 같은 경우 각 동에 설치된 마을계획단의 단장님들 중심으로 모여서 일단 가모임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태고 마을계획단의 단원 모두가 참여하는 단계는 아직 아니라고 합니다. 지금은 단장님들만 참여하고 있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추후에는 전체가 모이는 자리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른 분야들은 예를들면 주민자치위원협의회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은 이미 구성된 조직들이 있고, 또 거기에 구성된 임원단이 있어서 저희가 마을민주주의와 협력을 통해서 바로 만나 뵙고 이런 것을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고요. 다음에 마을만들기 분야는 아까 말씀드렸던 ‘모여라, 성북마을’이라는 모임에 이어서 진행하는 것으로 사전 홍보를 하고 진행했었고, 도시재생 분야 간담회는 도시재생 분야에 네트워크모임이 이미 구성된 곳이 있다고 해서 그 정기모임을 하는 자리에 제가 참석해서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 나누는 형태로 진행되었습니다.

아직 진행이 안 된 분야들도 있는데요. 사회적경제 부분이나 협동조합 영역은 아직 저희도 분야별 간담회가 진행된 상태는 아니라 오늘 집담회가 종료되고 나서 아직까지 저희가 접촉하지 못했거나 만나 뵙지 못한 단위들을 추가적으로 찾아가서 만나 뵙고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는 자리가 마련될 것 같습니다.

- **성북마을살이연구회 대표 홍수만** : 혹시 추천해 주실 만한 어떤 주민네트워크나 모임이 있으면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찾아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보문동마을계획단 유제훈** : 오늘 처음 와보니까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얘기를 좀 해 줘야 생각나는 것을 바로 바로 얘기라도 할 수 있을 텐데.

○ 진행 김기민 :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해소시켜드리기 위해서 협치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짧게 하기 어렵지만 최대한 짧고 간략하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협치라는 말은 기존에 영어로 거버넌스라는 말에서 출발된 것인데요. 지금 협치라는 말은 민과 관이 협력해서 각종 정책이나 다양한 사업들을 공동으로 추진해 나가는 어떤 하나의 활동, 혹은 그런 활동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 필요한 협력의 원리를 이르는 말이라고 볼 수 있는데, 현재 서울시를 중심으로 이 협치정책이 먼저 제안되었고 각 자치구로도 이런 내용들이 전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 초에 이렇게 제안들이 이루어졌었고 저희 성북구 지역에서는 상반기에는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였다가 8월 16일에 있었던 민관합동설명회를 기점으로 해서 많이 공론화가 된 상태입니다. 여전히 아직도 많이 알려진 상태는 아니지만 민관설명회를 기점으로 해서 계속 알려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방금 말씀드린 개념원리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어떤 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은 사실 행정의 영역에서 봤을 때 손에 잡히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뒷받침하는 역할도 하고,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이기 위한 또 하나의 방편으로서 협치에 관련된 몇 가지 사업들을 지금 시작하고 있는데요. 크게는 지역사회혁신계획수립사업이라든가, 혹은 시민협력플랫폼사업 같은 사업을 통해 주민들간, 혹은 민관영역 사이의 협력모델을 만들거나 혹은 그 협력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민과 관이 함께 지역의 어떤 다양한 혁신 의제들이나 과제들을 찾아보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 보고 그것을 실제로 실행하고 집행하는 과정으로서의 지역사회혁신계획 같은 방법들이 제안되고 있는데 현재 자치구 별로 이런 사업들을 개별적으로 준비해서 하고 있는 곳도 있고, 또 저희처럼 이렇게 논의 단계에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대부분 지역사회혁신계획 같은 사업은 거의 다 준비하고 있



는 상태 정도고, 실제 시작하거나 혹은 계획서를 제출한 단위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시민영역 간에 어떤 협력모델을 만드는 시민협력플랫폼사업 같은 경우는 몇 군데 자치구에서 신청서를 제출했고 실제 선정이 돼서 본격화 되고 있는 자치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모두 아직 완전 본격화된 단계는 아니고 이제 시작점에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협치라는 의제가 많이 제안되다 보니까 저희가 설명회 때나 1차 집담회 때 이런 내용들을 한 번에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도 있었고, 또 기존에 다양한 민관협력사업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민관협력사업이나 모델이 제안되고 제시되는 배경이 뭔가에 대해서 많은 의구심도 가지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의구심이나 우려 같은 것들도 해소하고 정확하게 그 실체가 뭔지 알아가는 차원에서 이런 자리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서 오늘 저희가 확인하고 논의해 봐야 될 내용들이 자연스럽게 나온 것 같은데요. 사실 이런 민관협력사업들이 그동안 존재하지 않았던 게 아니고 또 다양한 방면에서 추진돼 왔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주민들은, 혹은 민간영역에 있는 사람들은 왜 이것을 협치라고 인식하지 못했을까라는 의구심을 저는 개인적으로 가졌던 것 같아요.

물론 협치라는 말은 최근에 만들어지고 많이 알려지고 있는 말이지만 사실 그 원리는 민과 관이 함께 협력하고 합심해서 뭔가 공동의 과제들을 해결해 나간다는 개념이나 원리는 이미 충분히 저희는 경험을 했을 법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을 경험하게 하는 다양한 사업들과 정책들이 있어왔기 때문에 마을만들기사업도 그렇고, 도시재생사업도 그렇고, 쉽게 말해서 최근에 가장 핫한 민관협력 이슈였던 마을계획 같은 경우도 민과 관이 함께 하지 않으면 도저히 실행이 불가능한 어떤 협력체계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저희가 경험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협치로 인지하거나 인식하지 못했던 배경이 뭘까를 생각해 보면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적인 차원에서는 민과 관이 협력해서 뭔가를 한다는 구조로

시작되었지만 실제 그 과정에서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주민들이나 민간 단위들이 이것을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 수준의 협력 수준으로 봤을까? 그게 그 정도로 읽혔을까? 라는 부분에서 조금 의구심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 제안되고 있는 이런 협치정책이나 사업들에 대해서도 비슷한 맥락으로 의구심을 갖고 염려하게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동안 우리가 참여해 왔던, 혹은 경험해 왔던 민관협력사업들의 어떤 성과를 통해서 뭔가 얻게 되는 이점들이 있었겠죠? 반대로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느꼈던 한계점과 개선해야 할 문제점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성과와 한계로 명확하게 봄으로써 우리가 이후에 협치라는 것들, 민관협력이라는 것들이 어떤 시대적 과제로 다가오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그것들이 지난 과오를 반복하지 않고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전개해 나갈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를 오늘 할 수 수 있다면 얘기가 나뉘지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참여하신 분들의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대화를 통해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데요. 제가 보니까 주거환경정비사업 영역에서 활동하신 분도 계시고, 주거재생, 마을계획, 마을만들기사업, 웬만한 분야들이 다 망라된 것 같아요. 그래서 차례대로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희 주거환경정비사업 쪽에서 가장 우수사례라고 읽혀지고 있는 장수마을에서 경험했던 민관협력의 성과나 한계들을 한번 되짚어주는 말씀을 부탁 드려 보겠습니다.

소속과 이름을 말씀해 주시고 시작해 주시면 속기사님께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 장수마을 주민협의회 대표 배정학 : 장수마을 주민협의회 배정학이라고 합니다.

현재 마을에서 대표를 맡고 있는데 그냥 머슴 겸 회계총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좀 어렵네요. 실제로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주민협의회가 구성돼서 지금까지 한 3년 넘게 흘러왔는데, 주거환경관리사업 전환 이후에

장수마을에 한해서는 주민들의 인식들이 마을에 어떤 대표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어렵풋하게 각인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마을 일에 참여하는 것을 대표와 마을주민들이 상당히 긴밀하게 계획적으로 어떤 업무들이나 상황들을 이해하고 인지하는 것보다는 실제로는 대표가 계획을 하고 마을주민들은 거기에 그냥 참여하는 것, 쉽게 말해서 음식을 준비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물건을 만든다든지, 이 정도의 단순 작업과 단순한 어떤 상황에 개입하는 수준으로 그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진지하게 나가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시간들이 한 3년 된 것 같아요. 처음에 이 정도로 힘들지 알았으면 정말 못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행정은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 규격화된 뭔가를 계속 요구하죠.

이게 실제로 민관협력이라기보다는 약간은 그동안에 보면 ‘갑’의 위치에서 계속 ‘을’을 관리하는 상황으로 많이 흘러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마을의 주민협의회가 진정한 고민이 뭔가 보다는 공과금 잘 내서 위탁시킨 그 공간들을 잘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지 실제로 주민협의회 대표가 어떤 고민들을 안고 마을 일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실질적인 속내를 들여보려고 하지 않았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동안 경험해 본 것으로는 그냥 거점군과 아무 탈 없이 문제없고, 소위 말하면 마을에서 갈등 관계없고 그냥 조용하게, 뭐 크게 별이지 않더라도 소문 안 나게 마을이 안정적으로 굴러가면 그만 아닌가, 그런 거죠.

저희 장수마을 같은 경우는 다음에 어떤 대표가 몇 년을 더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적어도 이런 부분에서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인력이나 사람에 대한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 마을에서 신뢰를 받는 주민이 그런 역할도 해줘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장기적인 고민을 할 시간이 없었다는 거죠. 관에서 계속 요구하는 것은 장수마을이 아주 형식적인 틀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바운드리 내를 벗어나지만 않으면 크게 문제 삼는 것 없고, 그러니까 흔히 말하듯이 말 잘 듣고 모범적인 학생이면 딱 그만인 것 있잖아요? 주민협의회가.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이런 형태로 흘러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제가 고민하는 것은 결국 마을이 지역사회와 굉장히 긴밀하게 네트워크를 가져야 하고 대학과도 그런 연관을 가져야 하고, 초·중고 이런 학교들과도 연관을 가져야 하고 성북구 내에 있는 많은 중간조직들과도 연계를 가지려는 고민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한 실질적인 고민들은 대표가 자기의 역량에 맞춰서 해야 하거나, 하지 않거나 그렇게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을에 대한 부분은 점점, 외부의 시선은 장수마을이라고 하면 뭔가 잘 굴러가고 있어, 잘 되고 있어, 이렇게 하는데 대표를 맡고 있는 저의 심정은 어느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무게감이 그만큼 하중이 걸리고, 그러니까 서류 한 장에서부터, 기획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사람들 만나고 외부에서 또 이런 행사나 모임을 가는 모든 과정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대표를 벗어나는 게 지금은 유일한 소망입니다.

○ **진행 김기민** : 장수마을 주민협의회 배정학 대표님의 발언이셨고요.

뭔가 민간영역 내에서의 어떤 협력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하고 계신 것 같고, 또 민과 관이 정말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를 파트너로 인식하면서 다양한 활동들을 함께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돌아보게 만드는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수마을 같은 경우는 주거환경정비사업 지역이었기도 하고, 또 마을만들기사업이나 다양한 형태의 민관협력사업들을 경험해 봤던 지역인데, 마침 옆에 계시니까 떠오르는 슈팅스타 같은 새로운 혁신의제, 마을계획 분야에서 지난 시간동안 활동하시면서 느꼈던, 경험했던 성과도 있을 것이고, 또 마을계획단이라는 구조가 갖는 한계점 같은 것도 느끼시는 게 있으셨을 것 같은데 보문동마을계획단에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 **보문동마을계획단 황효심** : 마이크를 드는 게 굉장히 어색하기는 한데 그래도 얘기를 하니깐요.

○ **진행 김기민** : 보문동의 누구라고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문동마을계획단 황효심** : 보문동에서 온 마을계획단 교육문화분과위원장 황효심입니다.

저희가 9월 30일에 마을총회를 끝냈거든요. 그런데 정말 번갯불에 콩 볶아먹듯이 후다닥 해치워서 사실은 행사를 끝냈는지 아직도 실감이 안 날 정도예요. 어떻게 그렇게 빠른 시간 내에 끝내버렸는지.

그런데 그것을 하면서 ‘어, 이것은 아닌데’ 하고, 하지만 무언가에 이끌려 가서 하기는 했어요. 주변에 계신 분들이 잘 했다고 얘기들은 하시는데 그 말의 의미가 어쨌거나 잘 마쳤으니까, 끝냈으니까, 큰 사고 없이 끝냈으니까 잘 했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잘 해서 잘 한 게 아니고 모든 일을 끝내고 나면 좀 더 잘 할 수 있었을 텐데, 조금만 더 시간이 주어졌더라면 더 잘 할 수 있었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조금 남았었고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타이틀을 보면 마을계획단이라는 게 처음 주어진 것도, 저한테도 무슨 ‘장’자가 주어지니까 완장을 채워주면 뭔가 사람이 변한다고 할까? 그런 것처럼 안 해 보던 것을 하니까 내가 아주 대단한 뭐를 하는 것 같아서 상당히 아주 좀 그래서 이렇게 남을 만한 뭔가를 할 줄 알았는데 지나고 나니까 아무것도 한 일도 없고, 나의 존재가 정말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하는 나의 작은 존재감을 느낀 그런 행사가 된 것 같았어요.

그런데 확실하게 느낀 것은 주민 주도하에 마을민주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취지하에서 되는 것이라고 분명히 시작은 그랬는데 마치고 나니까 그게 정말 그랬을까? 하는 의문점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정말이었을까? 정말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취지대로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가 합쳐져서 그렇게 되었을까? 그 짧은 시간에? 그것은 아니다, 내가 내린 결론은 그것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분명히 하나로 일치되지는 않았어요. 작지만 파열음도 났었고, 그렇지만 사실 다수의 목소리에 파묻혔어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라고 해서 100% 다 찬성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죠. 그것은 공산주의니까요. 100% 찬성은 당연히 민주주의가 아니죠. 다양

한 목소리와 다름을 인정하고 가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다름을 서로 인정할 수 있음이 그렇구나, 그게 바로 서로가 마음을 합쳐서 해 나갈 수 있는, 그리고 양보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서로에게 느껴질 수 있고 내가 생각했던 것이 꼭 옳은 것만은 아니었구나를 느낄 수 있었던 것이 제가 얻은 큰 수확 중의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해 냈고 계속 해야 되는 일이구나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 **진행 김기민** : 마을계획단 활동을 통해서 정말 민주주의를 온몸으로 배우신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이 되네요. 어떻게 보면 그것 자체가 보문동마을계획단에 참여하셨던 분들에게는 큰 성과가 아니었을까, 말씀으로는 뭔가를 한 것 같았지만 막상 끝나고 나니 한 게 없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지만 그것 자체가 가장 큰 의미가 있는 활동이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문동마을계획단 활동은 올해부터?

- **보문동마을계획단 황효심** : 올해 처음이요.
- **진행 김기민** : 옆에는 작년도 월곡2동 마을계획단에서 활동하셨던 경험자가 계신데 작년 과정을 다 끝내고 나서 어떻게 보면 한 사이클을 먼저 앞서서 끝내신 것이잖아요? 작년의 경험들을 반추해 보시면서 이런 성과와 한계 같은 것을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 **장위동 주민 황선영** : 저는 오늘 들으러 오는 시간인줄 알고 아무 생각 없이 왔는데 이게 민관협치라고 하지만 사실은 관에서는 모든 성과를 보고서로 보고자 하기 때문에 관은 답을 가지고 우리를 지켜보는 거예요. “이것 다음에 이것 해야 되고, 이것 다음에 이것 해야 되고 일정대로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차마 협치라고 하니 그 말을 주민이 할 때까지 기다리다가 시간에 쫓겨서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은 작년에 저희 코디분이 굉장히 많이 고생을 하셨고 마을계획단을 처음 만들기 위해서 주민 한 분, 한 분을 만나서 구성이 됐는데 주

민들은 사실 어떤 모델이 없이 1년을 가다 보니까 그냥 양치기에 의해서 율타리 안에서 ‘자, 마음대로 해 보세요, 그렇지만 이 율타리 안에서!’ ‘논의해 보세요, 이 기간까지.’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쫓기다, 쫓기다 어떻게 해서 마을총회까지 마치는 했는데 사실 제가 그것을 1년만 하다 보니까 안타까운 점들이 1년마다 새로 계획을 세우고 결과를 발표해라, 또 이렇게 관에서 요구를 하다 보니 그 사업의 예산이라는 게 이게 올해 되면 내년도의 사업이 잦아요? 그런데 그것을 1년 단위로 계속 새로운 것을 하라고 하니 이게 연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연도에 저희가 심의를 해서 이런 예산이 있었으면 좋겠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결정이 됐고 주민총회에서 결정이 되면 그 다음 연도에 그것을 실행하는 것을 보고 장단점을 보완하고 다시 또 의견수렴하고 이렇게 해서 한 2년 정도의 사이클이 적당하지 않을까, 그런데 또 관에서는 성과가 빨리 해년마다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아쉬운 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작년하고 올해가 맥락을 같이 하지 않고, 또 주민들 구성원들이 바뀌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 주민들도 아무것도, 어떤 선행적인 것 없이 하다 보니까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월곡동 같은 경우를 1년 사례를 딱 정리해서 사실 새로 하시는 마을계획단의 장단점을 분석해서 똑같은 시행착오를 범하지 않도록 알려주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예요. 저희가 계속 사업을 하려고 할 때 ‘대표자가 있어야 됩니다.’ ‘예. 결산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까 영상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정말 그런 것에서 떠밀려서 하다 보니까 ‘에이, 한 번 해 보려고 했는데 나는 이것 때문에 못 하겠어.’ ‘나는 이거 일정이 안 돼서 못 하겠어.’ 이렇게 해서 결국은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적은 인원밖에 남지 않아서 그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 저희 성북의 이런 것들을 주도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잘 부탁드립니다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 **진행 김기민** : 말씀해 주신 내용 가운데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민관 협치를 한다고 하지만 어떠한 기준을 만드는 것은 결국 관이고, 그 관이 만든 기준 안에서 주민들이나 민간영역을 움직이게 된다는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인상적이었던 것 같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민관협치가 갖고 있는 한계점이 거기서 노출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존의 것과 앞으로 호명되는 협치가 만약에 정말 큰 전환점을 가지고 달라진다면, 그것이 달라지지 않는 한 지금까지 저희가 해 왔던 협치와 앞으로 하게 될 협치는 사실 별반 다르지 않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이 되게 뼈아프게 있었던 것 같아서 깊이 새겨들었습니다.

마을계획에 대해서 두 분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이어서는 쉬어가는 타임처럼 사실 중간지원 조직만큼 민과 관 사이에서 가장 많은 영향을 상호 주고 받는 단위가 또 없잖아요? 그래서 중간지원조직이 탄생함으로써 우리 지역사회에서 얻은 성과가 있다면 무엇인지, 혹은 그렇게 잘 해 왔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떤 점들이 한계로 남았는지 저희 성북구 마을·사회적경제센터를 운영하고 계시는 직원분들께 마이크를 넘겨보고 싶습니다.

가급적 오래 계셨던 분이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 **마을·사회적경제센터장 양현준** : 저는 성북구 마을·사회적경제센터장을 맡고 있는 양현준입니다.

우리 중간지원조직은 마을만들기 분야를 시작으로 해서 2012년에 개소가 됐고 2015년부터 사회적경제와 마을만들기 분야가 통합적으로 운영되는 중간지원조직을 구성해서 지금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아마도 작년부터 민과 관의 현안문제를 공동적으로 협의하기 위한 정례회의가 진행돼 왔었습니다. 월 1회 일정을 정해서 관련 주무부서와 센터 간 행사에 대한 기획, 또는 어떤 사업에 대한 현안논의 이런 것을 공동으로 주고받는 논의가 있어 왔



었고요.

처음에 시작을 그렇게 했는데 그 논의가 아주 원활하고 그것을 통해서 협치가 더 잘 된다, 이런 것은 아니었고, 저희가 중간지원조직을 운영하면서 정보의 비대칭이 존재하는 것을 많이 느꼈어요. 어떤 예산을 수립하든지, 민간 입장에서 사업의 방향을 잡기는 하는데 보통 예산이 수반되는 내용들은 몇 년 앞서 보기도 하고, 자치구 예산이 좀 부족했을 때는 광역 예산을 좀 끌어와야 되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정보들이 형성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아무래도 행정 분야는 굉장히 빠르게 확인이 되고 아마도 서로 교류가 많이 있는데 민간 부분은 그게 좀 뒤쳐져 있죠. 그래서 먼저 그런 예산과 계획한 논의가 나오면 거기에 대응하는 형태의 민관 논의가 이루어져 왔던 경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이 사례화 되어서 정보 비대칭은 약간 이런 것도 좀 존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위치에 대한 우월성과 그 차이가 존재하는 그런 것들이 민간의 입장에서는 세밀하고, 뭔가 설계를 하고, 뭔가 제안을 하고 싶지만 타이밍의 시기들이 존재를 해서 이것을 여유롭게 시간을 갖고 어떤 기획도 여유롭게 내용을 만드는 것들이 형성되면 좋겠는데 이게 일정이 짜여있잖아요? 1년 365일 주기라는 게.

그리고 바로 또 올해가 끝나면 내년에 대한 부분을 반영해야 되는 것들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민간 입장에서는 약간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계속 고민이 되는 것은 민과 관이 협치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짜여있는 스케줄과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지 못하면 약간, 그렇다고 민간이 의견을 안 낼 수는 없기 때문에 우격다짐으로 내야 되거나 급작스럽게 이루어져야 되는 이런 것들이 어려움으로 작용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어쨌든 우리 마을재생계획단실이 작년보다 조금 넓혀져서 국 차원에서 함께살이성북 사회적협동조합과 센터가 같이 모여서 월1회 민관 정례회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보다는 많이 개선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단 논의(안)을 작년 같은 경우는 행정 쪽에서 많이 제안이 들

어오는 케이스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민간 쪽에서 먼저 (안)을 생성시키고 행정에서 나온 (안)을 생성시켜서 두 가지 (안)을 비교 검토해서 같이 중요(안)으로 검토해 보는 시간도 갖고 있었고, 그런 것들이 아마 작게나마 민과 관이 협의논의를 추구해 가는 작은 사례를 보여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마 조금 더 확장해서는 우리 마을계획사업 추진과 관련돼서 마을계획단에서 오신 분들도 있겠지만 아마 찾아가는 동마을복지 추진지원단도 이 분야에 대해서는 행정하고 많이 교류를 하기 때문에 의견도 한번 들어보면 참고가 되지 않을까, 거기에 나타나는 애로사항도 있을 것 같으니깐 그런 것도 같이 교감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진행 김기민** : 일단 말씀하신 내용 앞서서 겹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좀 짜여진 틀에 맞춰져 갈 수 밖에 없는, 결국은 롤메이커는 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현재까지는 그래 왔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가늠하기는 어렵지만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여기서도 확인이 된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민과 관 사이에서 폭넓고 개방적인 정보공유가 전제될 필요가 있겠다, 사실 그런 정보가 기반 되어 있지 않으면 어떠한 것을 결정하는 것도 사실 어려워 질 수밖에 없고, 결국은 그런 결정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도 주민들은, 혹은 민간영역은 더 움직일 수 있는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러면 또 이어서 지역의 시민사회 영역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계신 즐거운교육상상의 안영신 선생님께 시민사회 영역에서의 어떤 민관협력 분야에서 그동안 경험하셨던 성과와 한계점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즐거운교육상상 안영신** : 성과의 지점보다는 협치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황선영 선생님께서 어쨌든 우리가 예산편성된 부분에 있어서, 또 예산의 범주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관이 정해준 틀 안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한계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성북에서 혁신교육지구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혁신교육지구사업을 하면서 그 한계를 넘어 설 수 있는 방법들을 보는 것 같아서 그것과 관련해서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은 게 조

금 이따가 송민기 선생님 오시면 또 말씀하실지 모르겠으나 혁신교육지구를 하면서 성북에서 원칙,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한 목적과 원칙을 같이 합의하고 이 원칙에 근거해서, 그러니까 원칙이라 함은 민학관 삼자가 각 사업별 추진단을 정확하게 다 구성해서 거기 안에서 사업의 모든 것들을 논의해서, 교사들은 굉장히 번거로워 하세요. 그 전에는 교육경비보조금으로 그냥 집행됐던 것들, 학교로 내려주면 알아서 썼던 것들을 민과 또 다른 관과 같이 해서 이것을 끊임없이 논의하면서 이 사업들을 추진해 나간다는 게 굉장히 번거로운 일로 처음에는 생각을 하셨는데 지금 그 과정이 어쨌든 끊임없이 계속, 많이 나간 회의는 20차 회의까지도 나가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어쨌든 서로에 대한 신뢰도 쌓여가는 것 같고, 그런 지점들이 예산이 미뤄지더라도 이것은 원칙대로 간다는 것을 꾸준히 견인해서 관을 좀 견인할 수 있는 지점을 만들 수 있겠다, 그래서 이 협치가 여기 성북 안에서 진행을 하게 된다면 그런 원칙들, 민과 관이 명확하게 견지해야 될 부분들을 같이 원칙을 세우고 합의를 해 나가고 거기에 따라서 사업을 이끌어 나간다면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한계들을 조금은 넘어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있고요. 마을 협치는 그렇고요.

의제별 협치도 각각의 진행들을 하고 있는데 이 의제별 협치와 관련해서는 어쨌든 명확하게 각 지역에서 네트워크를 꾸려서 열심히 추진하면서 여기에 따른 정책과 제도화까지 이어지는 과제들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 **진행 김기민** : 민과 관이 함께 원칙을 세우고 합의하고 그 원칙에 따라서 그런 활동들을 쭉 이어나가는 방식이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실제 또 혁신교육사업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실현되고 있는 모습들을 확인하고 계시니까 좀 더 의미있는 사례가 공유됐던 것 같습니다.

계속 제가 발언을 부탁드렸는데요. 혹시 자임해서 이 분야에 대해서 내가 좀 더 말해 보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고 하실 분 계실까요?

○ **성북마을살이연구회 대표 홍수만** : 돈암동 주민 홍수만입니다.

아까 전에 김태석 전 주민참여예산위원장님 계셔서 주민참여예산 부분도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어디 가고 안 계셔서, 그럼 제가 주민참여예산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문제점이라고 지적됐던 부분들 대부분이 이런 규정이나 어떤 시스템 안에서만 주민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대부분인데요. 이것은 주민참여예산뿐만 아니라 마을만들기사업이든, 마을계획단이든 그 시스템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협치라는 것은 우리가 분야별로 협치사업들이 이뤄지고 있는데 주민들이 그것들을 왜 체감하지 못하고 있을까라는 것을 고민해 보면 어떤 운영이나 기본적인 규칙들이 대부분 관 주도로 운영되다 보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내 사업이 아니라 그냥 나는 단순참여나 따라가는 형태의 구조 속에서 사고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거든요.

주민참여예산제도 사실 그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게 그냥 단순하게 이 사업이 주민 제안 의제로 발굴됐고 이것을 주민투표로 결정하자, 사실 이 구조만 게 논의될 게 아니라 과연 주민참여예산이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고, 재정의 부분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까지 사실은 좀 폭넓게, 그리고 아주 기초적인 부분에서는 주민참여예산 제도에 대한 조례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운영규칙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참여하시는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논의를 할 수 있는 구조가 돼야 되는데 사실 그런 것은 거의 안 하고 있거든요.

재작년에 주민참여예산위원들 임기가 2년, 연임해서 총 4년까지 할 수 있었는데 그것을 1년, 1년 이렇게 조례를 바꿨어요. 그런데 거기서 과연 주민들한테 얼마나 의견을 수렴했고 직접 활동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위원들한테 수렴을 했느냐고 물어봤을 때는 거의 사실상 없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 모든 행정이나 이런 것들이, 물론 행정이라는 것은 주민들의 어떤 시스템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그 특수성을 어느 정도 인정해야 되겠지만 소위 말해서 주민들이 참여하는 사업 분야에서만큼은 기존의 어떤 틀에서 벗어나

지 않으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협치라든지, 어떤 주민참여라는 것들이 되게 협소하거나 아니면 되게 왜곡돼서 주민들한테 전달될 수밖에 없고, 또 얼마 전에 확인했던 게, 여전히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정말 분개할 수밖에 없었는데 어떤 동 직원이 주민참여예산 인증번호를 받아서 대신 투표하고 있다, 그런 소식을 접했을 때 내가 과연 이 사람들, 관하고 협치가 가능할까?

사실 주민들한테 이론적으로 아무리 민주주의를 교육해 봤자 힘들거든요. 그러면 체험과 경험을 통해서 깨달아 가는 과정들이 오히려 더 소중하고 그것을 통해서 확장되는 개념이 되게 중요한데, 물론 일부 일 수 있겠습니다만 아직도 이런 형태가 벌어진다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협치를 할 수 있고, 주민참여가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사실 이것은 성북구만은 아닙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노원이나 도봉이나 강북이나 다른 지역에서도 활동하게 됐는데 여전히 그런 지역들이 항상 있더라고요. 관에서 행정담당 직원들이 대신 작성하거나 주민참여예산사업 같은 것들을 대신, 그러면 사실 주민참여예산제도라고 부르지 말고 공무원참여예산제도라고 이름을 바꿔야겠죠?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 만약에 그런 것들을 바꾸지 않고 논의를 하지 않으면 협치라는 것도 사실은 그냥 공염불, 그냥 저기에 단어만 달랑, 그리고 페이지상에서만 등장할 수 있는 단어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진행 김기민** : 주민참여예산 분야에서 그 주민참여예산 제도 자체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또 장기적으로는 재정에 대한 고민, 주민참여예산을 규정하는 조례나 운영규칙들을 바꿔 나갈 수 있는 역할들을 주민참여예산위원 스스로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언급이 있었고요. 또 협치에 참여하는 행정의 자세와 태도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주민참여예산 분야죠.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청년활동 분야에서 올해 성북구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저도 사실 말로만 들었지 그런 사례들을 직접

옆에서 지켜 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앙정부에서 행정부가 국회의원들, 그러니까 정부 입법으로 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의원 입법방식으로 하면 좀 더 완화된 방식으로 입법을 할 수 있으니까 정부와 가까운 성향을 가진 의원들에게 로비를 하거나 접근해서 법안을 우회로 제출해서 통과시키는 사례들을 신문을 보고서 이것이야말로 정말 협력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예를 들면 청년정책 분야에서 청년주민들이 직접 주민참여예산(안)을 내고 하는 방식으로 되는 게 원칙인데 그 정책이나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이름만 빌려다가 해서 제출하는 사례들을 보고 정말 이런 방식으로 진행된다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원래적 취지와 어떤 본질과는 맞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많이 실망스러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초반에 많은 분야들을 언급했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다양한 민간협력 분야 가운데서 마을미디어 분야를 빼놓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마침 또 저희 성북마을미디어네트워크의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신 능말이야기의 이상림 선생님께서 와 계셔서 마이크를 넘겨서 마을미디어 분야에서의 어떤 협력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 **능말이야기 이상림** : 저는 사실 아까 다 말씀하신 것처럼 협치, 이런 것을 들으려고 왔는데요. 주민으로서 이게 간극이 정말 크죠. 홍수만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구청에서 협치다, 마을민주주의다, 이런 것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주민들은 정말 똑같거든요.

그래서 정말 마을민주주의 협치에 대한 의향이 있는 것인지, 그러면 무엇부터 시작해야 될까, 어떤 사업을 공모해서 이렇게 해, 이런 것 하면 우리가 도와줄게,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것이 먼저인가, 그것을 왜 하는 것이고,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가장 처음 시작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 뭔가 변화를 바란다면 무엇부터 변화를 가져와야 되는지 그런 것부터 저는 의심이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궁금했던 것은 그러면 협치가 마을만들사업이나 이

런 것에서만 협치가 이루어지는 건가요?

○ 진행 김기민 : 아닙니다.

○ 농말이야기 이상림 : 그런데 듣기에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제가 동네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저랑 같이 협치 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중간조직이라는 분들은 어떤 분야에서만 중간조직인 것이고 내가 정말 필요로 해서 손을 내밀고 싶은데 그 분야에서 그런 분들은 없으신 거죠. 협치와 마을민주주의에 대한 그런 것들을 주민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부터 다시 점점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마을미디어?

○ 진행 김기민 : 네, 마을미디어 분야에서 또 활동하고 계시니까.

○ 농말이야기 이상림 : 그렇죠. 쌓인 게 되게 많죠.

(웃 음)

하다 보니까 미디어에 인쇄매체가 있고, 저는 처음에 인쇄매체로 시작을 했고요. 이제는 성북마을미디어지원센터가 생겨서 영상매체를 하고 있는데 상황이 정말 안 좋아요. 그래서 소위 활동가라고 하시는 분들, 여기 임진규 선생님도 계시지만 활동가라고 하시는 분들의 재능기부와 힘에 의지해서 그런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데 그 중간조직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행정 이런 것들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인쇄매체나 지역영상 이런 것들이 사실 저는 모든 것의 기반시설 이고 처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성북구에서 지금 여러 가지 축제다, 또는 마을민주주의다, 협치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위한 기반이 되는 것들은 지금 하나도 할 수가 없고 그냥 주민의 활동, 저임금이라든지, 열정페이, 지금 그런 것들로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습니다.

○ 진행 김기민 : 마을미디어 분야에서 실제 실행단위에서의 기반조성에는 비교적 무심하고 사실상 그 무심함으로 인해 방치된 영역들을 주민들의 저임금

노동이나 혹은 모두 자원활동에 지나치게 의존해서 진행되는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하셨던 내용은 마을민주주의나 협치 이런 것들이 많이 회자가 되고 언급이 되고 있지만 실제 주민들과 그것을 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고, 그것은 그런 논의들을 할 수 있는 장을 현장 안에서 살고 있는 삶, 일상 속에서 만나보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내가 원하는 분야에 어떤 파트너를 바로 만나기 어려운 구조에 대한 언급도 하셨습니다.

말이 나온 김에 붙여서 설명을 드리자면 서울시에서 지난 9월 29일에 서울특별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를 통과시켰어요. 그 조례에 의거 저희가 나누어드린 자료 후반부 쪽에 그 조례 원문이 첨부되어 있는데요. 조례상의 기초에 따르면 서울특별시장을 의장으로 하는 서울협치협의회가 곧 구성이 될 예정입니다.

이것은 서울시 광역단위 차원에서의 협치기구라고 보시면 되고요. 각 자치구에서도 이런 협치조례들을 제정할 수 있도록 서울시 쪽과 이것을 담당하는 부서와 아까 언급했던 협치서울지역협의회 민간 측의 분들이 TF를 구성해서 각 자치구에 제안할 협치조례안 표준(안)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완성이 되면 각 자치구로 그 표준(안)을 공유할 텐데, 물론 그 표준(안)을 그대로 다 따라야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말 그대로 일종의 권고(안)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이고 각 지역의 현황에 맞춰서 가감이 될 텐데 지역별로 협치협의회라는 기구가 생기고 그 기구가 지역 전반의 협치 의제들을 다루는 민관합동총괄기구로서 기능하게 되는 것은 서울시 산하의 모든 자치구에서 동일한 포맷으로 가게 될 거예요. 서울시 자체도 그렇고, 그 기준 자체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 기구가 그동안은 각 해당부서 별로, 칸막이 별로 진행됐던 다양한 민관합동위원회, 혹은 분야 별로 민관협치사업이 진행되었다면 그 구조를 포괄하는 하나의 구조로서 아우르는 협치협의회가 구성이 될 텐데 내가 필요로 하거나 내가 참여해야 되는 어떤 분야를 찾기 어렵고 그 파트너를 만나기 어



려운 상황이라고 했을 때 이런 협치협의회 같은 합동기구가 나름의 역할을 제대로 잘 작동하고 기능한다면 그런 역할을 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또 연결해서 말씀드리자면 이제 각 자치구별로 그런 조례안 표준(안)이 전달되고 나면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지역 자치구 차원에서도 협치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어떤 움직임들이 시작될 거예요. 행정 쪽에서도 협치조례 제정을 위해서 움직이게 될 것이고, 또 행정 단독으로 제정하는 것이 협치 정신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민간에도 합동으로 조례 초안을 같이 고민하고 논의할 수 있는 역할을 요청하게 될 텐데, 그때 저희같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주민이나 민관단위에서 어떻게 거기에 호응하고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앞으로 저희가 해 나가야 될 고민의 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참석하신 분들의 분야들을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지금 8시 15분 정도고요. 저희가 협치에 관련된 전반적인 이야기들을 8시 반까지 나누기로 했는데 혹시 지금까지 나왔던 내용에 좀 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 혹은 이것 아니더라도 뭔가 덧붙이고 싶은 얘기가 있다고 하시면 지금 마저 하고 이어서 향후 활동에 대한 고민들을 같이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보문동마을계획단 황효심** : 제가 지금 여기에 처음 참석한 게 아니고 사실 관심이 많아서, 관심보다는 사실은 몰라서 알고자 해서 참석을 해서 듣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빠지지 않고 계속 몇 차례 와서 여기 계신 분들의 낮이 익을 정도로 되니까 그 내용이 어렵듯이 조금 잡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정도 되면 사실 전혀 안 들으신 분들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건방지지만.

그래서 마을활동을 하는 분들은 당연히 들으신 분들이 대부분이겠지만 마을계획단 여러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만약에 계속 진행을 해서 그 하고 계신 일들을 한다면 이렇게 모여진 자리가 그 분들에게도 계속해서 주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을 해 온

상태로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보니까 처음 접하는 분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 분들한테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또 그게 진행돼야 하는데, 그러면 그것을 또 잡아서 언제쯤부터 그게 진행되어 질지 그게 궁금하고요. 또 제 생각에 그것은 반드시 있어 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존에 했던 분들도 시간이 지나면 그것에 대한 개념이 조금 희미해져서 다시 재교육이 들어갈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꼭 있어 줘야 될 것 같아요.

○ **진행 김기민** : 정말 꼭 해 주셔야 될 말씀을 정확하게 잘 해 주셨습니다.

○ **보문동마을계획단 유제훈** : 제가 한마디만 더 할게요. 저는 가입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저는 잘 몰라요. 그런데 늦게 와서 일을 하다 보니까 뭐라 그럴까요? 의견이 너무 촉박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전부 다 공무원들에 대해서 되게 눈치를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3~4주가 남았는데도 그냥 제안을 잘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저 혼자 생각은 그거예요. 이게 벌써 여기서 다 해서 정해져서 동사무소에서 여기까지 와서 다 픽스가 됐으니까 한 달이 남았는데도 의견 제안을 안 받고 그것을 잘라버리니까 뭐라고 할까? 우리가 일정도 모르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내년도에 할 때는 언제까지 일정을 정해서 제안을 받고 그런 것을 알아야 서로 오해가 안 생기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제가 보기에는 주제를 만드는데 교육이 제대로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직장에서 저거 할 때는 항상 돌출시키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토론하고 그것을 돌출시켜서 어떻게 진행하겠다는 이런 계획까지 다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냥 각자가 내는 것 같아요. 뭐 세 명 이상 한다고 그러면 거기서 그냥 딱 되니까.

거기서 다 같이 공유해서 토론이 돼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교육이, 저도 교육을 안 받았지만 교육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교육을 못 받았는데 교육을 제대로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 직장 생활했던 사람들은 어느 정도 그것을 알지만 주부 같은, 저희 동네 마을계획단에는 남자가 2명인가 그렇죠? 몇 명 안 되고 전부 여자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교육을 할 때 그런 것을 돌출할 수 있는 것, 문제

점을 교육받을 수 있게 해 주셨으면, 그리고 내년도 계획에 대해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진행 김기민** : 마을계획단 분야에서의 어떤 건의사항이나 제안사항을 말씀해 주신 게 맞습니까?
- **보문동마을계획단 유제훈** : 오늘 처음 왔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협치라는 게 어떤 것인지 잘 알겠어요.
- **진행 김기민** :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제가 마을민주주의과 마을계획담당 공무원이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 텐데,
- **보문동마을계획단 유제훈** : 여기서 해서 다 넘어가는 거죠.
- **진행 김기민** : 마침 저 뒤에 마을민주주의과 은현기 팀장님이 앉아 계시는데 말씀하신 내용을 아마 잘 정리하셨을 것이라고,
- **보문동마을계획단 황효심** : 같은 보문동에서 와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 일정이 다 끝난 다음에 조금 늦게 오셨어요. 저희는 정해진 일정대로 계속 밀고 나가야 되니까. 그러면 나중에 들어오신 분을 교육을 받은 다음에 가입을 시키느냐, 그것을 가지고도 찬반 논란이 많았어요. 그런데 교육을 받은 다음에 해야 된다면 일정이 뒤쳐져요. 왜냐하면 앞으로도 계속 나가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다가 오랜 시간과 돈을 투자해서 계속 와서 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또 뭐냐, 그것에 대한 반발도 컸기 때문에 그것도 일리는 있는 말이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막 하다가 그러면 서로 한발 뒤로 물러서서 일단 가입해서 회의에 두 번 이상 정상적으로 참석하시고 우리가 개별적으로 동별로 교육 일정을 다시 짤 수는 없지만 구청에서든, 또 다른 동에서도 그러한 사례가 있을 거니까 모아서 교육을 하는 사례가 있으면 반드시 참석하는 것을 단서로 해서 가입을 하는 것으로 하자, 그렇게 했으니까 반드시 구청에서는 교육을 해 주셔야 하고요.

그래서 선 가입 후 교육이 되는 차원이 되겠지만 그렇게 하는 것으로 했

으니까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되고, 중간 중간에 분과별로 회의가 계속 있어 왔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참석을 못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게 무슨 월급을 받는 일도 아니고 자기 차비들이고 점심 값 들여서 개인적으로 와서 그렇게 하는 것인데 강제성을 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참석을 못 하면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서 또 개인적인 사정을 봐 드리고 그렇게 일을 추진 해 왔던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잘 했으니까 박수를 쳐줘야 될 일이지만 또 그 부분에 있어서 과열음이 난다고 하면 열심히 한 사람들은 그 부분에 있어서 답답함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에 가서 얘기 들어보면 이쪽 말도 맞고, 저쪽에 가서 얘기 들으면 저쪽 말도 맞으니까 어쨌든 그 중간에서 중심을 잡고 일을 끌고 가고자 하시는 분들의 애로점도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무사히 마치고 나서 하는 얘기지만 이해하면서 서로 해 준 것에 대해서는 서로 위로하고 잘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구청 쪽에서는 그 부분, 교육차원에서 얘기했던 것, 나중에 들어오신 분들이 반드시 그것을 해 줘야 된다는 단서를 우리가 달았기 때문에 그것은 약속을 꼭 지켜주셨으면 하는 게 있었으면 합니다.

- 진행 김기민 : 마을민주주의과에서 그렇게 약속을 해 주셨나요?
- 보문동마을계획단 황효심 : 네, 그렇게 해 주셔야만 저희가 나중에 들어오시는 분들을 받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거든요.
- 진행 김기민 : 협력이 잘 되었네요.

마을계획 분야에서 말씀하신 이런 상황들이나 사례들이 계속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확실히 이런 보수교육 체계가 마련되는 것은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고, 그것이 나중에 들어오신 단원분들을 위한 교육을 제공하는 확정된 시스템으로 계속 작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약속을 하셨다고 하니까 이후에 그 약속이 잘 이행되기를 기대하고 바라겠습니다.

- 보문동마을계획단 유제훈 : 저도 교육을 받고 싶어요.

- 진행 김기민 : 네, 이렇게 강렬한 교육의 열의를 갖고 계신데,
- 보문동마을계획단 유제훈 : 지금 보문동을 누워서 침 뱉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 진행 김기민 :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 찾동추진지원단 부단장 정윤주 : 마을계획단 얘기가 나와서요. 마을계획단을 중간에서 지원하는 추진단지원단에서 제가 일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6개동 마을계획을 진행했던 곳에서 전 과정에 참여했던 분들 한 분씩 추천을 받아서 마을계획 프로세스를 어떻게 보완하면 좋을지 FGI를 진행하고 그 연구보고서가 조만간 나올 것 같아요.

지금 마을계획단 교육에 대해서 비슷하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인터뷰를 해 보니까 마을계획단 교육 몇 회를 반드시 이수해야만 마을계획단에 참여할 수 있다는 그 내용이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주민들이 마을계획단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는 내용이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었고, 또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어요. 그래서 마을계획단에 참여하기 위해서 교육을 받는 것도 맞지만 마을계획단 활동을 조금 더 잘 하고, 마을을 내가 좀 더 어떻게 잘 이해하면 좋을까 답을 찾기 위해서, 좀 더 도움을 받기 위해서 교육을 받은 것이니까 그런 내용들을 저희도 모아서 구청 민주주의과에 제안을 드릴 생각이구요. 그럴 때 보문동마을계획단에도 이런 욕구와 사례들이 있으니까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과정을 밟고 다른 동 사례까지도 모아서 제안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 보문동마을계획단 유제훈 : 구청 마을계획단에서 알고 있어요.
- 찾동추진지원단 부단장 정윤주 : 네, 알고 계세요.
- 보문동마을계획단 유제훈 : 이 과정을 구청 마을계획단에서 알고 있어요.
- 찾동추진지원단 부단장 정윤주 : 정릉2동의 한 계획단원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교육을 받지 않더라도 일단 참여를 하고 지원단이나 구청에서 찾아가는 교육을 진행하고, 또 그러려면 수시로 이런 교육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한 번에 교육을 몰아서 받는 것이 아니라 기본교육 받고 그다음에 활동을 하면서 동특성과 내용에 따라 심화교육이 진행됐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도 많이 주셨거든요.

- **보문동마을계획단 유제훈** : 제가 가입이 안 되는 바람에 제가 담당자님한테 찾아가서 말씀을 드렸어요.
- **찾동추진지원단 부단장 정윤주** :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도 저는 협치 내용의 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설명회부터 1차 집담회, 2차 집담회를 다 참여했는데 이제는 내용이 조금 좁혀진 논의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아직 이 협치의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께는 기획단 내에서나 아니면 별도로 저희가 논의를 해서 찾아가는 설명회나 찾아가는 상담창구 이런 것들을 열어놓고 상시적으로 협치에 대한 내용들을 알리는 과정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3차 집담회를 또 하실 건가요?

- **진행 김기민** : 그것은 저희가 후속 논의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나눠야 될 것 같아요.
- **찾동추진지원단 부단장 정윤주** : 지금 약간 들으면서 이제 뭐를 한번 해 볼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좀 변화를 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 **진행 김기민** : 찾동추진지원단의 정윤주 부단장님 말씀이셨고요. 아까 황효심 선생님께서 협치에 관련된 내용들을 분명 모르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분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는 뭔가 처음부터 다시 설명하고 안내하는 작업이 필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반복된 교육과 공유가 필요하겠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사실 그 부분은 저희 기획단이 구성되면서도 같이 고민해 왔던 부분들이라 저희도 이런 의견 공유라든가, 이야기를 나누는 집담회 자리가

한 번 할 때마다 스텝바이 스텝 별로 계속 꾸준히 상승하는 정도의 공유의 성과를 얻을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것은 저희가 한정된 작은 집단도 아니고 다양한 사람들이 계속 들고 나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이 내용들을 알리는 작업은 사실상 불가능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이런 자리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어느 분은 조금 더 많이 인식하고 상태, 또 다른 분은 인식이 조금 부족한 상태가 혼재된 상태로 계속 나아갈 수밖에 없는데 방금 정윤주 부단장님 말씀처럼 이런 것을 계속 반복하는 것으로 해결해 나갈 것인지 아니면 포맷을 달리고 논의를 진전시키는 방향으로 시도를 해 보면 좋을 것인지에 대한 내용도 저희 후반부에 예정된 후속활동에 대한 고민을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가 질문을 열자면 저희가 항상 설명을 드리지만 저도 앞에서 마이크를 잡으면서 느꼈는데요. 뭔가 된 것 같은 착오를 일으키는 게 있어요. 물론 이 집담회를 주관하는 것이 협치성북 정책현황 공유를 위한 민관기획단이 맞기는 한데 그 기획단이라는 것이 굉장히 임시적이고 가설적인 구조예요. 1차 집담회 끝나고 거기 참석하셨던 분들 가운데서 이런 활동을 계속 관심을 갖고, 하고 싶은 분들이 또 남은, 그러니까 대부분의 분들은 가시고 남은 분들이 구성하게 된 임시적인 조직이거든요. 이런 내용들을 계속 공유해야겠다, 이게 정말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느끼신 분들이 함께 기획단을 구성했기 때문에 여기서 고용된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활동을 하기 위해 어떤 예산이 배정된 것도 아니고 그냥 하겠다는 의지를 가진 분들이 모였고, 다만 이 과정에 기존부터 하고 계셨던 성북구 마을·사회적경제센터나 이런 활동들을 충분히 지원할 의지가 있는 성북구청의 관계 부서에서 이런 행정적이나 예산적인 도움을 일부 주셔서 음료도 마련하고 이런 공간도 쉽게 마련해서 이런 행사들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들을 일단 계속 할 필요가 있다는 대전제에 공감을 하신다면, 또 여기 오셨던 분들 가운데 이런 기획단 활동에 추가적으로 더 참여해 주시면 정말 이런 논의들을 풍성하게 이루어 나가는데 보탬이 많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보문동마을계획단에서 오신 두 분께 마음을 다해서 초대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까지 해 왔던 전체 집담회나 분야별 간담회 방식의 정책현안공유 활동들이 충분히 이루어진 것 같다, 이제 뭔가 좀 더 어떤 형태나 방식을 달리해서 이러한 내용들을 좀 더 새롭게 나누고, 또 어떤 논의의 범위들을 집약하고 좁혀서 좀 더 깊이 있는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얘기까지 포괄해서 앞으로 향후 활동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야기를 편안하게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북마을살이연구회 홍수만 대표님!

○ 성북마을살이연구회 대표 홍수만 : 홍수만입니다.

저희가 2013년부터 인가요, 2012년부터 인가요? 헛갈리는데, 어쨌든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장이 되고 나서부터 소위 말하는 우리 민관협력사업들이 엄청나게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돼 왔죠? 이것은 비단 성북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 지자체들이 그 역량 아래서 다양한 민간협치사업들이 분야별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기존에도 있었죠. 주민자치위원회를 포함해서 각 직능단체, 그것도 어떻게 보면 민관협치사업인데 여기 민관이라는 범위에서의 '민'은 무슨 학문기관이나 이런 것은 제외하고 말 그대로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협치를 하기에 앞서서 민관협치 이전에 우리 민민끼리는 과연 그런 것들의 정보공유나 협치가 잘 되고 있는가를 먼저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현실 진단이 있는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현실적인 어떤 방향성이라든지, 지향성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조사를 해 봤는데요.

기존에 어떤 직능단체의 민간협의체 기구는 빼고 그 이후로 만들어진 민관협치에 관련된 조직들입니다. 일단 성북구 인권위원회에 있고, 인권센터시민위원 있고, 혁신교육지구 운영협의회, 혁신교육지구 실무협의회, 혁신교육지구 사업별 추진단, 혁신교육지구 자문위원회, 혁신교육지구 학생자문단, 성북



마을미디어네트워크, 마을민주주의 추진위원회, 성북구 마을복지운영위원회, 성북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쓰레기 절반 줄이기 민관협력운동본부, 성북 절전소 협의체, 성북구 녹색환경정책추진위원회, 그리고 성북구 주민참여산제, 그리고 찾동추진지원단,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민관협의기구들이 있는데 아마 이것은 일반 주민들은 대부분 모르고 계시는 부분이거나 아니면 알고 있어도 아주 극히 일부만 그런 기구의 존재를 알고 있을 겁니다.

물론 이 기구에 대해서 성격은 명확하게 파악을 해야겠죠? 실무적인 기구인지 아니면 그냥 자문을 받고 있는 기구인지 그리고 여기서 적극 의견이 수렴되는 기구인지 아니면 단순 청취하는 기구인지 아니면 반만 먹고 빠이빠이 하는 기구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이나 현황 파악들을 해 봐야 되는데 사실 일반 주민들 대부분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 공유가 제대로 안 돼 있다 보니까, 물론 동북4구협의체도 있죠.

그런 상태에서 과연 이게 주민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 민관기구이고, 그 민관기구들이 주민 의견을 제대로 수렴할 수 있는가에 대한 현장점검이 먼저 필요한 것 같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방향성들을 맞춰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 협의체 기구마다 아마 성격들이 다르거나 아니면 현재 포지션들이 다른 상태에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뭔가 민관협치를 해야 된다고 추진했을 때는 아마 분명히 격차 때문에 나중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요지도 있고, 그러면 이 현실 진단을 어디까지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사실은 되게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아까 보문동마을계획단 분들이나 1차 집담회 때 마을계획단 분들의 얘기를 청취해 보면 아까 정윤주 부단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협치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못 하고 있으니까 이게 또 뭐 하나의 사업이냐고 자꾸 의심하시고, 나 이거 하기 싫어, 너무 힘들어, 지금 마을계획단 하기도 벅차 죽겠는데 뭐를 또 하자는 얘기냐,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형태인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민민 사이에서 이런 것들을 같이 논의할 수 있는 논의기구가 상당히 필요한 것 같고, 아까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임시

기구거든요. 이게 어떤 주체성이나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어떤 한쪽 분야만, 아니면 특정 몇 몇 집단만 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집담회를 통해서 사실은 그런 어떤 대표성을, 물론 100% 만족할 수 없겠지만 어느 정도 찾아가고 그것을 통해서 네트워크를 한 다음에 민민협력 안에서 민관과 협치 할 수 있는 어떤 대등한 관계에 가야 올바른 방향성이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것을 통해서 그 안에서 우리가 실제로 사업을 진행해야 될 시민플랫폼사업이나 지역혁신사업 계획인가? 두 가지가 진행되는데 시민플랫폼사업이 바로 민과 민이 같이 협력하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정보도 사실 아직은 우리가 협치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을 못 하고 있고 공유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업 먼저 추진하면 안 되겠다, 기존에 성북구의 어떤 사례도 마찬가지로, 서울시 전체적으로 봐서도 마찬가지지만 자꾸 사업만 추진하다 보니까 주민들은 계속 허덕이는 거예요. 이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오라고 해서 왔는데 투표하란다, 참여하란다, 말하란다, 이런 형태로만 가다 보니까 이게 소위 말해서 민주시민으로서의 어떤 분위기가 형성된다기보다는 주민들이 사업별로 동원화 대상에서 머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 과연 이 협치가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것인가는 정말 고민해야 될 부분이지요.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현재 컨디션은 분명히 파악할 필요가 있고, 그 현실 진단을 통해서 우리가 다음 단계를 어떻게 나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것들을 가기 위해서는 지금 임시적인 회의기구가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좀 더 구체적인 어떤 그런 게 될 필요가 있고, 가급적이면 지금 참여하지 못한 단위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지금 또 손 드셨네요?

○ 마을·사회적경제센터 전미희 : 질문있습니다.

그러면 민민협치 점검과 관련해서 그 방법론을 어떻게 구성하고 계시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 성북마을살이연구회 대표 홍수만 : 제가 답변해야 되나요?
- 마을·사회적경제센터 전미희 : 점검해야 된다고 얘기했으니까 최소한 어떤 형태로 점검이 이루어져야 되는지, 그렇다면 그 점검의 틀이나 형태 아니면 방법, 이런 것들이 이제는 어느 정도 저희가 논의가 돼야 되지 않을까.
- 성북마을살이연구회 대표 홍수만 : 그래서 그것을 차후에 어쨌든,
- 진행 김기민 :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평가 점검의 방법에 대한 논의는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세부적인 논의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런 활동들을 하려면 결국은 사람이 모여야 되고 그 모이는 사람들의 조직이 힘을 받고 계속 움직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2차 집담회까지 기획단이 이런 역할들을 해 온 것인데 저희는 끊임없이 새로 이런 활동에 참여하실 분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절대 닫힌 구조로 있으면 안 된다고 확신하고 있어서 여기에 같이 결합하실 새로운 분들을 찾는 과정으로서 이런 집담회를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오늘 모이신 분들 가운데 추가적으로 기획단에 참여하실 분들은 꼭 모시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9월 한 달 동안 진행했던 분야별 간담회를 통해서 만난 분들도 있지만 또 못 만난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못 만난 분야, 예를 들면 사회적경제의 영역, 협동조합 포함해서요. 그쪽에는 이미 이런 조직화된 단체가 있어서 그런 단체들을 찾아가서 면담을 하고, 이런 식의 활동이 되어서 저희가 언급했던 지역혁신 분야의 다양한 분야별로 최소한 대표자를 보낼 수 있는 곳이면 대표자면 가장 좋고, 대표자까지 보낼 수 있는 조직화된 상태가 아니라고 하면 그 중에 관심 있는, 그런 역할을 자임하는 누군가라도 자발적으로 오실 수 있게 구조를 지금보다는 조금 더 촘촘하게 만들어야 저희가 이후에 활동을 함에 있어서 정말 진정한 의미의 민민협력, 민관협치가

가능한 방식이 될 것 같거든요.

저희가 지금까지 충분히 잘 해 왔지만 앞으로 좀 더 잘 하기 위해서 이런 역할들을 함께 해 주실 분들을 적극적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황효심 선생님과 보문동마을계획단에서 오신 두 분께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최초에는 사회적경제 부분이랑 이쪽 부분은 함께살이 이사장님이신 박학룡 이사장님께 역할을 부탁드렸는데 워낙 장위동 도시재생 활동관련해서도 힘드시고, 함께살이 이사장 역할도 하시느라 바쁘셔서, 혹시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연결시켜줄 만한, 그 안에 분들만 소개시켜 주실 수 있을지 그런 내용으로 실무적인 마무리 짓고 오늘 집담회를 마무리 지으면 어떨까 합니다.

그 이후에 아까 마을공동체 전미희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세부적인 평가나 논의는 새롭게 합류하신 기획단분들과 함께 구체적으로 방법들을 논의해 보고 그 논의를 기반으로 해서 이후에 집담회를 다시 열게 되든, 어떤 다른 모임을 열게 되든 그렇게 진행해 나가는 게 오늘의 일정을 마무리 짓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회적기업연합회 대표를 연결시켜서 자리를 주선해 주시겠다든가, 협동조합협의회 의장을 연결시켜주시겠다, 혹은 그 관계된 활동가나 열정적으로 활동하시는 분이 있으면 연결을 해 주시겠다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 **함께살이성북 이사장 박학룡** : 일단 논의를 전혀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까지 사회적경제 쪽은 협치를 더 강화하고 발전시키자는 큰 틀이 아니라 지금 진행되고 있는 서울시가 던진 협치사업에 대해서는 아직은 조금 소극적이에요. 왜냐하면 사회적경제 쪽은 자기 미션들이 분명하고, 직접적으로 풀어나가는 쪽에 가깝고 어떤 큰 틀에 대한 관심이 있지는 않아서 여기에 기획단 이랄지 이런 식으로 참여하는 데는 아직까지 소극적인 것 같고, 그래도 그것에 대해서 지역사회의 어떤 변화를 위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자는 취지의 얘기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약간 영역별로 결이 다른 것 같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이상하게 이번 협치 제안에 대해서는 뭔가 고민이, 진전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배가 고파서 그렇기도 하지만 평소에 협치라는 게 어떤 구체적인 사업비나 이런 게 아니고, 가령 각 사업이, 아니면 어떤 의제들이 얼마만큼 서로 협력이 잘 되고 있는가, 의사결정을 어느 수준으로 하고 있는가 이런 영역인데 협치를 계속 얘기하고 있기는 하지만 뭘 하자는 건지 저도 계속 해매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 어떻게 보면 본격적인 뭔가를 정하기 전에 개념을 만들어가는 것인데 협치의 추상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2016년에 던져진, 2017년까지 우리가 해야 될 성북구의 협치 과제는 뭔가, 이런 게 필요한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 홍수만 선생님께서 얘기하신 가령 성북구의 의사결정이나 논의구조의 중요한 축인 각 위원회들이 제대로 대표성을 갖고 논의되고 있는가를 평가해 본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5개 민관이 같이 하고 있는 도시재생, 혁신교육, 마을계획, 마을민주주의 이런 내용들 중에 과연 우리가 어느 수준으로 협치가 되고 있는지를 공동평가 작업, 아주 객관적인 평가까지는 어렵더라도 우리가 평가할 때 협치가 어느 정도수준까지 갔는가, 그러면 그 중에 우리는 가령 2017년에는 뭐를 한 번 풀어볼 것인가, 예를 들면 마을계획이 지금 정말로 주민들과 공동의사 결정을 하고 공동으로 풀어나가는 방식으로 가고 있는가, 그러면 정말 마을계획부터 협치가 이루어지도록 2017년에 민관이 힘을 쏟아보자, 이런 결론이 가능할 수 있잖아요? 그런 구체적인 뭔가를 잡아가는 게 조금 더 관심이 들어갈 것 같고, 그러면서 가령 도시재생, 사회적경제는 이것을 어떻게 여기에 같이 협력하고 힘을 쏟을 것인가 이렇게 가면 차라리 저희가 도시재생에서, 사회적경제에서 어떻게 참여할지가 더 분명하게 잡혀가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그런 논의가 앞으로, 지금까지는 서울시가 이런 제안을 하는데 이게 지금 맞느냐, 어떤 의미냐, 이런 것을 해석하기에 바꿨다면 성북의 협치는 무엇을 풀 것인가에 대한, 이것을 뭐라고 하죠? 전문용어로는 개념설계 뭐라고 하던데 그런 것을 좀 해 보자는 내용이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각자 구체적으로 제안할 내용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번이나 다다음번에 그런 논의가 된다고 하면 서로 주제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 진행 김기민 : 제가 이어서 말씀드리자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문제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8월 16일 민관합동설명회 참석 이후에 지금 이 자리에 있기까지, 사실 저뿐만 아니라 이 기획단에 참여하는 모든 단위가 마찬가지로 상황이지만 어떤 이런 평가라든가, 점점의 역할들은 사실 저희 같은 임시조직에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저는 보기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숙된 말로 여기 있는 분 어느 한 분 하나 자기 생업이 없는 분 없는 상태에서 말 그대로 자기 밥벌이하기 바쁜데 이런 역할까지 한다는 게 과연 가능하냐, 그러니까 그게 필요한 것은 누구나 알지만 그게 실질적으로 가능하냐라는 문제가 뒤따라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임시조직이나 많은 분들이 결합해서 힘을 나누고 보태는 과정들이 있어야 그게 기반이 되어서 뭔가를 하기가 좀 더 수월해 질 것 같은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현재 상태에서의 기획단 구성과 기획단이 그동안 보여 주신 어떤 활동의 내용, 그런 결합도를 고려해 봤을 때 저는 어렵다고 생각이 돼요. 말씀하신 과제들에 대한 고민과 점점, 평가 반드시 해야 되고, 그 평가를 기반으로 해서 향후 어떤 협치정책을 설계하고 고민함에 있어서 꼭 근본 바탕으로 써야 하는데 그 근본 바탕을 쌓는 과정을 우리가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좀 회의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과제는 제가 봤을 때 이 임시조직이 조금 더 탄탄히 되어서 최소한 시민협력플랫폼 같은 활동의 뒷받침을 해 줄 수 있는 재정적, 예산적, 행정적 구조를 만들 수 있는 것까지 가서 그 구조가 이런 사항들을 고민하고 평가해서 향후에 성북구 지역 안에서의 다양한 협치 의제와 혁신 의제들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그 역할을 해 보자는 자임하는 과정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현재 시점에서 그 역할을 자임하기에는 저희 역량이나 여건이 너무 어렵다고 판단이 돼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풀기 위해서 그러면 시민협력플랫폼사업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면 저희가 처음에 우려하고 고민했던 그 문제에 다시 한 번 직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이 언제 그 딜레마가 깨질지는 저도 가늠하기 어렵고 여기 계신 분들도 예측하기 어려울 것 같지만 최소한 저희 기획단

이 맡는 역할은 그 전 단계까지 맡는 것이 저희 현재 여건을 고려했을 때 적합한 목표의 설정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 목표 설정을 하기 위해서 저는 좀 더 많은 분들이 이 과정에 참여하시는 게 임시조직이나 좀 더 정당성을 갖고 대표성을 갖고 이런 활동들을 주도해 나가는 것이 더 수월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매끄럽게 연결될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저는 오늘 적게 참석하신 부분은 아쉽기는 하지만 저는 오늘 참석하신 분들과 그동안 얘기했던 것보다 더 밀도있게 얘기를 많이 나눈 것 같아서 이분들과 앞으로 이런 고민들을 조금 더 나누고 향후에 어떻게 또 지역사회에 이런 내용들을 알리고 새로운 분들을 모시게 되는 과정을 밟을지 이후에 기획단 운영회의나 논의를 통해서 방법들을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더 늦기 전에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오늘 자리를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오늘 방명록에 연락처를 다 적어주셨으니까, 저희가 기획단 회의일정을 잡아야 될 것 같은데 그 건은 저희 대화방에서 더 논의키로 하고 괜찮으시다면 저희 이후 기획단 모임에 초대를 드리고 싶은데 괜찮으실까요?

○ 보문동마을계획단 유제훈 : 네.

○ 진행 김기민 : 그러면 두 분 다 동의해 주시고 승낙해 주신 것으로 알고 다음 기획단 모임 일정이 정해지는 대로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함께 자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일동 박수)

( 20:51 산회 )